

인쇄하기

기초·원천기술 연구성과 23건, 기업에 이전 2013-11-13 14:34[기사 인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초·원천 기술 23건이 기업에 이전되거나 제품화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늘(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연구성과 8건을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15건에 대해 상품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양해각서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기술 이전된 연구성과는 성균관대 채종서 교수팀이 개발한 초소형·초절전 전자동 스마트 원형가속기, 서울대 김성훈 교수팀이 개발한 폐암 항암제 후보물질, 포항공대 한세광 교수팀의 고성능 감염치료제 등입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기초·원천 연구성과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74개 기술을 선정해 사업화 컨설팅과 수요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 가운데 10여 개 기술에 대해 사업화 모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2년 동안 최대 4억 원씩의 후속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TOP](#)